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Covid-19 확산에 따른
중증환자 치료 대응 전략



CONTENTS

01

포커스

- Covid-19 확산에 따른 중증환자 치료 대응 전략 1
-

02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ONC, 만성신장질환 연구에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을 적용할 계획 4
 - 영국 소셜학습 플랫폼 '퓨처런(FutureRun)', Covid-19 과정 개설 4
 - 영국 로틱스, 디지털트윈 기술에 기초해 Covid-19 대응 생태계 지원 5
 - 영국 프림리파크 NHS병원, CT 영상 재구성 인공지능 알고리즘 최초 설치 5
 - 유럽 기술플랫폼(PEPP-PT), Covid-19 감염자 추적 앱 사용을 지지 6
 - 호주 멜버른대, Covid-19 개인 동선 추적 앱의 인권침해 가능성 제기 6
-

03

4대 보건산업

- 미국 FDA, 담관암에 대한 최초의 표적치료제 승인 7
 - 미국 CDC, 허술한 관리체계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오염 발생 7
 - 미국 애보트, 코로나19용 진단키트에 대한 FDA의 EUA 획득 8
 - 유럽의회, 예방백신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8
 - 코스메틱스 유럽, 코로나19 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협력 플랫폼 개설 9
 - 베트남 퍼스널케어 시장,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성장세 기록 9
 - 글로벌 제약산업, 미래 스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10
 - 가치기반치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십 년 동안의 노력이 중단될 위기 10
-



Covid-19 확산에 따른 중증환자 치료 대응 전략

COVID-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랜드코퍼레이션(RAND Corp)’은 중증치료 역량 관련 3대 요소(ICU 공간, 인력, 비품)를 규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개월에 걸쳐 중증환자 급증할 사태에 대비해 ‘중증치료 역량 강화 전략’을 제시

■ Covid-19의 확산으로 미국 보건시스템에 미증유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보건조직·州·지역의 자체 보유 자원에 대한 평가 및 중증환자 치료 역량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

- '20년 3월 기준 미국의 확진자 수는 중국을 추월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미국 인구의 60%가 감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무엇보다도 중증환자 치료 시스템의 정상화가 절실하며, 중증환자 치료 역량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ICU)의 공간, 인력, 비품의 원활한 공급과 관련해 전환적 사고가 필요

* 중증환자 치료와 관련해 △중국 Covid-19 환자 코호트 보고서에 따르면, 심각 수준의 감염 환자가 15%, 위중한 수준은 5% △이탈리아의 경우 입원을 요하는 환자는 54%, 특히 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감염자는 최대 18%

- 동 보고서는 Covid-19 확산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 미국내과학회(ACEP)와의 공조로 이뤄진 최전방 임상의들에 대한 조사, 미국의 응급·중증치료 의사 및 공중보건 전문가들과의 전화 토론 등에 기초해 중증치료 역량 창조를 위한 전략 리스트를 제시

[중증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

■ 동 보고서는 위기 대응 전략은 ‘자원 공급량은 증대시키되 시스템의 수요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원칙하에, 현실 적응 차원의 1단계와 보다 적극적인 2단계 전략으로 분할 제시

- 1단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contingency) 역량 전략’으로 치료 공간, 인력, 보급품 부족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핵심이며, 일반 치료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는 미미한 정도
 - 여기에는 △마취후치료병동(PACU) 및 수술실 병상을 ICU로 전환 △응급실 및 PACU 담당 간호사를 ICU에 배치 △산소호흡기의 추가 구매 등이 포함
- 2단계는 ‘위기 역량 전략’으로서 일반 치료 부문에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예측
 - 여기에는 △일반 병상을 ICU로 전환 △미국 재향군인병원(VHA) 외 여타 연방/비민간인 시설의 ICU를 활용 △폐업 병원의 재개원 △치료기준 변경 등이 포함

- 보고서는 미연방재난관리청(FEMA)의 데이터를 분석해 중증치료 전문의, 간호사, RT, 산소호흡기, 병원 침상 가용 수(량) 대비 수용가능 환자 수를 예측했으며, 그 결과 산소호흡기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평가

□공간·스태프·비품 관련 단계별 대응 전략□

부문	1단계 전략	2단계 전략
공간		
침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취후치료병동(PACU), 응급실, 수술실을 ICU 병상으로 전환 - ICU 입원 환자 수를 2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병상을 ICU로 전환 - 미국 재향군인병원(VHA) 및 병원선을 포함해 연방/비민간인 시설 내 개방 ICU를 활용 - 이동병원의 ICU 활용 - 폐업 병원의 재개원
인력		
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실 및 PACU 담당 간호사를 ICU에 배치 - 재향군인병원(VHA) 및 연방 시설에서 비번(非番)인 간호사를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 대상으로 '적시(just-in-time)'에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치료 전문 간호사의 감독 아래 중증환자를 치료 - 환자 대비 ICU 간호사 비율 변경 (기존의 1:1 혹은 2:1에서 3:1로 변경) - 실무 간호사가 중증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 고학년 학생을 활용해 상태가 덜 위중한 환자 돌보게 하기
호흡요법사 (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T 일인당 산소호흡기 비율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취 전문 수술실 간호사를 배치해 독립적으로 혹은 RT의 감독 하에 치료
전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U 치료 경험이 있는 응급실 및 PACU 의사를 ICU에 배치 - VHA 및 연방시설에서 비번(非番)인 ICU 의사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병원이 '중증치료 전문의의 감독 하에' 중증치료 서비스를 제공 (예: 중증치료 전문의 1인당 병원 2곳 담당)
비품		
산소호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구입 가능한 산소호흡기 구매 - 지역 병원의 산소호흡기 대여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호흡기 하나로 다수의 환자 나눠 사용하기(ventilator splitting)

[핵심 비품: 산소호흡기]

■ 현재 산소호흡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가운데, 뉴욕주 보건부는 '뉴욕장로교병원 (NewYork-Presbyterian Hospital)'이 제안한 '산소호흡기 나눠쓰기(ventilator splitting)' 프로토콜을 승인

- 동 프로토콜에 대한 임상적 논란이 거세고 몇몇 의학협회로부터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현재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역량 증대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하나의 유일한 전략

- 병원들은 액체산소가 든 대규모 저장탱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료용 산소 및 운반에 적절한 트럭의 가용성 확보'에 대해 정부가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중
- 현재 산소호흡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전에 ICU 외의 상황에서 사용되던 다양한 유형의 산소호흡기를 활용하는 추세
- 여기에는 수술실용 마취장비 외, 이동형·가정용·비침습형 산소호흡기 등이 포함

[전략 실행을 위한 고려사항]

■ 동 보고서는 중증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실행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래 두 가지 범주(병원 및 州, 지역, 연방 기관)로 나누어 정리

□ 전략 실행을 위한 기관별 고려사항 □

병원	州, 지역, 연방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치료의 공간·인력·비품과 관련한 병목현상 평가 및 문제점 해소 전략 규명 - 단계별 집중치료 역량 계획을 적재적소에 수립 - 공간·스태프·비품 활용에 있어 긴급성이 덜한 절차 철폐 - Covid-19 대응에 있어 다양한 역할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확보 - 중증치료와 관련해 적시 훈련 대상자 파악 - 중증치료 역량이 저조한 일반 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원격-ICU 자문 제공 - 지역사회(기업, 구급의료기관, 요양원) 및 의료연합체 등과 협력해 중증치료 역량 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공중보건기관 간 소통 및 협력 촉진 - 니즈에 따른 자원의 비율적 분배를 위해 지역별로 자원 공유 프로토콜 개발 - 자원 등록 및 부족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동 데이터를 병원 등에 배포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자원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진 - 보건 자원봉사 인력 확보를 위해 임시 자격증을 수여하는 정책을 제도화 - 중증치료 역량 창출에 있어 장애물을 규명하고 이를 해소 - 산소호흡기 등 여타 중증치료 자원의 공급량 확인 - 산소호흡기 등 자원 공급처의 가격 인상을 저지하는 정책 도입 - 중증치료 및 자원과 관련해, 위기 상황 시 신규 표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 제공

[Critical Care Surge Response Strategies for the 2020 COVID- 19 Outbreak
in the United States, 2020.0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ONC, 만성신장질환 연구에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을 적용할 계획

■ 미국 ONC(국가보건정보기술조정국)는 만성신장질환 연구를 위한 'PCOR 기계학습 프로젝트(PCOR Machine Learning Project)'에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을 적용할 계획

* ONC는 미국 보건복지부(HHS) 산하기관으로 'PCOR 기계학습 프로젝트'는 국립당뇨소화신장질환연구소(NIDDK)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참고로 현재 미국의 만성신장질환자는 약 3,800만 명 수준

- ONC와 NIDDK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고품질 훈련 데이터세트에 대한 요구조건을 정의하고 AI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환자 중심적 결과 연구(PCOR)'에 적용할 계획
 - 이 같은 데이터세트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기반의 예측모델 훈련 △상세 연구 목표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특징 추출 △데이터 내 유의미한 연관성 파악 등을 위해 중요
- 동 프로젝트의 중점 사항은 △기계학습 모델 개발 △모델 실적 평가 방법 규명 △PCOR 연구진들이 이 같은 방법론을 향후 적용할 수 있도록 리소스 및 자료 배포 등

■ 양 측은 실무그룹을 결성해 데이터 소스 및 건강 격차 해결을 위한 기술 등에 대해 논의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AI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신장질환의 영역 및 그 용례, 관련 데이터의 저장 위치 및 검색 방법, 데이터 훈련의 모범사례 파악에 있어 필수

[Health IT Analytics, 2020.04.06.; Health IT Buzz, 2020.03.31.]

영국 소셜학습 플랫폼 '퓨처런(FutureRun)', Covid-19 과정 개설

■ 세인트조지런던대(St George's, University of London)는 소셜학습 플랫폼 '퓨처런(FutureLearn)'에 지역보건의 대상으로 Covid-19 과정을 개설

- 동 과정은 영국의 1차의료 부문 최전방에서 Covid-19 감염 환자를 다루는 임상외, 보건인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계
- 강의는 전염병학, 임상증상 및 징후, 현재의 COVID-19 관리, 의심사례에 대한 안전한 평가 방법, 의료진 당사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프로토콜 개발 등으로 구성
- 동 과정은 2주간(주당 2시간 소요)의 단기과정으로, 이미 전 세계 200여 개국의 약 1만6,000명의 학습자들이 등록해 개강한 상태
- 홈페이지 상에서의 설문 결과, 다수가 Covid-19 확산 시국 가운데 현장 복귀를 요청받은 영국국민보건서비스(NHS)의 은퇴자들이었으며 수강 목적은 관련 정보 수집

[Health Tech Digital, 2020.04.20.; FutureLearn, 2020.04.07.]



영국 로틱스, 디지털트윈 기술에 기초해 Covid-19 대응 생태계 지원

■ 로틱스(lotics)사는 영국 전역의 필수 침상 가용 현황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개발

-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기술에 기반한 솔루션 ‘크리티컬케어(CriticalCare)’는 영국 내 모든 병원의 ‘디지털 트윈’을 제작해 가용 침상의 수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 대응 생태계를 지원
 - * 디지털트윈은 컴퓨터에 현실세계의 사물 쌍둥이를 만든 다음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그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
- 결과적으로 △병원 관리자들은 해당 지역의 침상 및 산소호흡기 자원의 가용성을 실시간 파악해 환자를 자원 여력이 있는 곳으로 이송 처리 △그 결과 의료진은 환자 치료 업무에 더욱 집중 △더 나아가 정부는 자국 내 자원을 전국단위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정보에 입각해 실시간으로 광범위한 정책을 수립 가능
- 정보 기반의 결정을 위해서는 사일로(silo)에 갇혀있는 비구조화된 관련 데이터를 활용·통합해 Covid-19 대응 생태계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
 - 이를 위해 로틱스 측은 지역 및 전국의 병원 관계자, 기술 협력사 등과 논의 중

[Healthcare IT News, 2020.04.20.; lotics, 2020.04.15.]

영국 프림리파크 NHS병원, CT 영상 재구성 인공지능 알고리즘 설치

■ 영국 프림리파크 NHS병원(Frimley Health NHS Foundation Trust)은 딥러닝 재구성 인공지능 알고리즘 ‘AiCE(Advanced Intelligent Clear-IQ Engine)’를 설치

- AiCE는 환자의 CT 스캔을 신뢰할만한 고품질의 영상으로 신속하게 재구성함으로써 임상 의들에게 보다 정확한 영상 정보를 제공해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지원
 - 동 솔루션은 딥러닝 알고리즘에 기반해 ‘노이즈(noise)’와 실제 징후를 구분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에 △왜곡현상 감소 △가장자리 보존 △영상 출력 시 세부사항 유지가 가능
- 첨단지능형 Clear-IQ 엔진 AiCE는 빅데이터와 헬스 부문 간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프로젝트들은 환자 데이터세트의 고품질 정보를 AI 시스템에 주입해 궁극적으로 반복 업무의 자동화를 달성하는 것에 역점
 - 이로써 임상 의들은 영상검토 작업에서 탈피해 환자 상담 및 관리, 전문사례 연구에 집중
- * AiCE는 ‘영국캐논메디컬시스템(Canon Medical Systems UK)’의 ‘어퀼리온 원 제너시스 에디션(Aquilion ONE GENESIS Edition)’ CT 스캐너에 통합

[Health Tech Digital, 2020.04.14.; JCAT, 2020.03.30]

유럽 기술플랫폼(PEPP-PT), Covid-19 감염자 추적 앱 사용을 지지

■ 유럽의 기술플랫폼 ‘범유럽개인정보보호 근접추적(PEPP-PT)’은 Covid-19 감염 위기에 처한 접촉자들을 추적하는 스마트폰 앱을 지원하고 있는데, 7개국 정부가 이에 지지를 표명

* 현재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 7개국 ‘범유럽개인정보보호 근접추적(Pan-European Privacy Preserving Proximity Tracing)’의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표명하거나 플랫폼의 구성원에게 해당 국가의 앱 개발을 위임

- PEPP-PT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게서 전파될 수 있는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프록시(proxy)로 개인 장비 간 블루투스(Bluetooth) 단거리 통신 사용을 옹호
- 200여 명의 과학자가 협력하고 있는 동 플랫폼은 각 국가별 추적 앱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국경 간 상호운용되게 함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

■ PEPP-PT의 접근법은 ‘인구 60%가 추적 앱을 사용하면 전염병 억제가 가능하다’는 ‘옥스퍼드대 빅데이터연구소(Oxford University's Big Data Institute)’의 연구에 기반

- PEPP-PT 회원(사)가 개발한 접촉자 추적 앱의 국가별 채택 현황을 보면, △이탈리아는 스타트업 ‘벤딩스푼즈(Bending Spoons)’의 앱을 지원 △독일은 ‘프라운호퍼 하인리히 헤르츠연구소(Fraunhofer Heinrich Hertz Institute)’가 개발 중인 앱을 출시할 계획

[Reuters, 2020.04.17.; TechCrunch, 2020.04.18.]

호주 멜버른대, Covid-19 개인 동선 추적 앱의 인권침해 가능성 제기

■ 개인 동선 추적용 Covid-19 앱 ‘트레이스투게더’로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침해 논란 가중

- 추적 앱은 전화나 문자 등의 노동집약적 접근법에 견주어 바이러스 감염자의 동선 추적 및 접촉자 파악에 효율적이지만, 추적 앱이 가져올 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이 필요
- 일례로 싱가포르의 ‘트레이스투게더(TraceTogether)’의 경우, ‘센트럴 오서리티(Central Authority)’ 서버가 생성하는 임시 ID는 주기적으로 새로고침(refresh) 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엇보임
- 호주 정부는 ‘트레이스투게더’를 채택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멜버른대(University of Melbourne) 등의 연구자들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동 앱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
 - 핵심 문제는 △사용자가 ‘센트럴 오서리티’를 신뢰해야 하는데, 그것이 호주가 아닌 싱가포르에 소재한 싱가포르 보건부 서버라는 점 △물론 데이터 로그가 사용자의 승인 하에 동 서버로만 전송되겠지만 승인요청의 진위 여부 확인이 난해 △동 서버가 대규모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로그를 획득·해독함으로써 대규모 감시 위협의 가능성을 유발

[ZD Net, 2020.04.15.; CNA, 2020.03.20]



4대 보건산업

미국 FDA, 담관암에 대한 최초의 표적치료제 승인

■ 미국 인사이트(Incyte)사는 난치성 암종인 담관암(Cholangiocarcinoma)을 가진 환자에게 사용되는 페마자이레 치료제를 FDA로부터 승인 획득

* 담관암(Cholangiocarcinoma)은 간에서 담낭 및 소장으로 소화액 담즙을 운반하는 가느다란 관인 담관에서 형성되는 희귀암을 지칭

- 페마자이레(Pemazyre, 성분명 pemigatinib)의 승인은 사전 치료를 받은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을 가진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종을 가진 107명의 환자를 임상 시험한 결과에 근거
- 담관암 환자의 대략 9% 내지 14%의 종양에서 섬유아세포성장인자수용체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FGFR2) 융합이 발견되었는데, 페마자이레는 종양 세포에서 FGFR2를 차단하여 성장 및 확산을 방지하는 치료제
- FDA는 페마자이레를 희귀질환에 대한 약물 개발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희귀의약품(Orphan Drug)으로 지정하였으며, 신속처리절차에 따라 승인

[FDA, 2020.04.17.; Incyte, 2020.04.17.]

미국 CDC, 허술한 관리체계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오염 발생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제조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오염으로 전국단위의 진단검사가 한 달간 지연

- 미국 FDA에 따르면, 최초 진단키트 제조를 담당한 CDC의 공공보건실험실이 자체 프로토콜에 부합하는 진단기기를 제조하지 못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진단검사 실시가 한 달 동안 중단되었다고 발표
- 코로나19 발생 후, 세 곳의 CDC 공공보건실험실 중 두 군데가 오염된 진단키트를 제조하였고, 이를 100개의 주 및 지방 공중보건연구소에 보급
- 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이 방호복을 갈아입지 않고 출입하거나 양성 코로나바이러스 샘플이 있는 동일한 방에서 진단키트를 조립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
- CDC의 공공보건실험실에서 이루어진 허술한 실험과 관리체계 소홀로 인해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혼란이 가중

[New York Times, 2020.04.18.; the-scientist, 2020.04.20.]

미국 애보트, 코로나19용 진단키트에 대한 FDA의 EUA 획득

■ 미국 바이오제약회사 ABBOTT社는 COVID-19에 대한 5분 진단검사 기기인 'ID NOW COVID-19 test'에 대해 FDA의 '비상사용승인(EUA)'을 획득

- 미국 FDA로부터 EUA 승인을 받은 ABBOTT의 진단키트는 현장 분자진단 (Point-of-care, POC) 검사방식으로 양성진단은 5분, 음성진단은 13분안에 판별 가능
- 이 'ID NOW COVID-19 test'는 다양한 위치에 배치가 가능한 경량 상자(6.6 파운드, 소형 토스터기) 크기의 Abbott의 ID NOW™ 플랫폼에서 실행되며 진료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테스트 가능
- 비상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에 대한 근거 규정은 미국식품의약국 (FDA)법 제564(b)(1)과 미국법전(21 USC) §360bbb-3(b)(1)이며, 이 규정에 따라 제품 사용이 허용

[MDDI+ Online, 2020.04.03.; ABBOTT, 2020.03.27.]

유럽의회, 예방백신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예방백신에 대한 공동 대응'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강조

- 전염병, 백신접종 기피 현상, 거짓정보 등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EU 전체 지역의 문제로 대두
- 이러한 문제의 대응방안으로 △유럽 전지역에 걸친 크로스보더 백신접종 △백신접종 기피와 잘못된 정보를 막기 위한 회원국간의 협조와 정보의 투명성 △신속한 행동과 지속적인 백신 개발 노력이 필요

■ EU 회원국들은 전염병과 관련된 EU 법률을 시행하고, 위험평가와 의료시스템 역량을 강화할 의무가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EC)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국들을 지원

- '제3차 EU 보건 프로그램(Third EU Health Programme, 2014-2020)'은 전염병으로부터 EU 회원국을 보호하는 예방백신과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원
- '18년 9월 출범한 '유럽백신공동행동(EU-JAV)'은 백신 접근성을 보장하고 백신 안정성 유지 및 관련 분야 연구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European Parliament, 2020.04.04]

코스메틱스 유럽, 코로나19 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협력 플랫폼 개설

■ 유럽 퍼스널케어협회인 코스메틱스유럽(Cosmetics Europe, CE)은 '위기상황에서의 공동협력(Working Together in crisis)' 플랫폼을 개설

- '코스메틱스유럽'은 이 플랫폼을 통해 CE와 EU 유관기관의 활동 상황,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
- 또한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CE 활동에 대한 정보, EU 기관의 발표 및 이니셔티브,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산업의 동향 정보, 손 세척 등 위생 교육 및 지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CE의 주요 정책분야는 개인위생제품의 제조 시설이 공중보건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며, 원료 및 운송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고, 필수 개인위생제품의 제조 및 유통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개인위생을 전염병 예방의 중요한 예방 조치 중 하나로 강조하였으며, 개인위생제품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비누, 손 및 바디 클렌징 제품, 구강관리용 치약 등을 포함

[CTPA, Cosmetics Europe, 2020.04.15.]

베트남 퍼스널케어 시장,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두자리 성장세 기록

■ 코로나19(Covid-19)의 첫 발병일인 2월 1일부터 4주동안 베트남 퍼스널케어 화장품 시장은 두 자리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베트남 퍼스널케어 부문은 동 기간동안 도시지역 29%, 농촌지역 19%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전체 일용소비재(FMCG)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
 - * 전자상거래의 성장세가 높은 가운데, 특히 온라인 채널에서 발생한 매출 증가분의 80%가 미용부분에서 발생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색조 화장품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지만 마스크, 아이케어, 핸드크림, 바디로션 등 피부관리 및 개인위생제품에 수요는 견조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시장조사업체 닐슨베트남(Nielsen Vietnam)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퍼스널케어 (구강청결제 +78%, 개인청결제 +45% 및 화장지 +35%)와 홈케어는 COVID-19 이후 개인청결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

[Cosmetics design- asia, 2020.4.20.; Nielsen, 2020.2.20.]

글로벌 제약산업, 미래 스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제약산업은 소비자직판방식(DTC), 맞춤형 치료제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유전자 치료제(cell and gene therapy)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향후 인재격차(talent gap) 문제에 직면

* 인재격차는 급속한 기술변화와 사업구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필요 스킬과 인력의 부족을 의미

- 이러한 파괴적 기술혁신으로 인해 제약·의료제조업의 기존 업무활동의 50%가 자동화되고, 10년 안에 9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9만 개에서 12만 개의 다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제약회사들은 △스카우트(scout) △형성(shape) △이동(shift)의 3단계 접근방법과 직원들의 스킬재교육(reskilling)을 통해 미래의 스킬갭(skill gap)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

- 스카우트 단계에서는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사고방식을 식별하고 인력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평가하고 공백을 해소하는 방법을 결정
- 형성 단계에서는 수요-공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아키텍처를 설계
- 이동 단계에서는 인력전환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프로젝트 기반 배치 △역할 전환 △스킬 개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 변혁을 관리

[McKinsey, 2020.04.10.; Pharma Manufacturing, 2020.03.23.]

가치기반치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십 년 동안의 노력이 중단될 위기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병원과 의사들이 단기간의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치기반치료(value-based care)가 중단될 위기

- 대규모 보건시스템과 개업의사들은 긴급한 COVID-19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보호장비(PPE), 인공호흡기, 추가 인력에 대하여 자금을 투입
- COVID-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소요된 많은 비용들이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동안 긴급하지 않지만 높은 수익을 창출해 온 의료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병원재정이 급격히 악화
- 주요 4가지 유형의 가치기반지불방식인 △위험 공유(shared risk) △총액 인두제(global capitation) △포괄수가제(bundled care) △절감액의 공유(shared savings) 등 대부분은 선행적으로 재정적 보증이 필요한 지불방식을 채택
- 전국 220개 넘는 책임의료기관(ACO)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0%가 재무 손실을 피하기 위해 위험기반지불모델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

[Health Dive, 2020.04.15.; REVCYCLE INTELLIGENCE, 2020.04.14.]